시련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㉕ 마음 속 부처님의 미소

빚 독촉에 시달리다

L씨는 몇 년 전 남편이 숙환으로 먼저 가고 나자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근처 건물에 자리를 하나 내 주며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옷가게를 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 곳은 위치가 좋아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일 년 후에는 다 갚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만 믿고 가게를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운영해 보는 가게라 경험이 없어 모든 것이 힘들었다. 1년이 지났으나 이익은커녕 가게 임대료도 간신히 내는 형편이 되었다. 매달 들어가는 비싼 이자는 더욱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원금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당장 그 큰돈이 생길 데가 없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L씨가 부탁했다.

그는 막무가내였다. "그건 댁의 사정이고, 내 사정은 어떡해요? 나는 그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단 말이야." 은근히 협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그렇게 돈 갚기 어려우면 또 빌려서 갚으면 되잖아요." "네? 또 빌리다니요. 지금 이자 내기도 힘든데 어떻게요."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런 거요. 일수 대출하는 데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일수요?"눈 앞이 캄캄해졌다. 처음부터 인심 쓰며 돈 빌려주고 가게를 시킬 때 이런 계산이 있었구나! 여기가 잘 안 나가는 것을 알고….

마음의 힘 기르기

그 때부터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협박하듯 독촉했다. 전화를 안 받으면 가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었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두렵고 무섭기도 했다. 매일 속이 탔다.

> 남편과 사별후 돈 빌려 가게 개업
> 낮은 수익과 빚 독촉으로 큰 시련
> 마음의 힘 기르며 힘들어도 '미소'

절에 가서 울었다. 스님은 "당장 끄달리는 것부터 좀 벗어나야 장사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배울 것은 그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아니라 마음 속 부처님께서 듣는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마음을 고요하게 깊이 집중해야 한다. 바다에 비유하면 마음을 파도치게 하지 말고 바다 밑바닥에 닿듯이 깊이 가라앉히라는 것이다.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부터 하라고 했다.

처음엔 어려웠으나 L씨는 열심히 해 보았다.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 달이 지나가자 뭔가 든든함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돈 내놓으라는 재촉을 또 어떻게 견디나…. L씨는 한숨이 나왔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그를 만나 거친 말을 들으며 배운 대로 계속 마음속으로 듣는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말 좀 해 보라고, 언제 줄 거야!"라고 해도 당황되지 않고 침착하게 답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을 시달린 후 나오는데 놀랄 일이 생겼다. L씨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른 것이다. 상대는 L씨의 얼굴을 보더니 "이제 아주 미쳤군, 미쳤어. 이 마당에 웃음이 나와?"하고 소리쳤다.

부처님의미소

전철을 타고 돌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다. '이상하다. 이 힘든 와중에 왜 이러지' 하며 '이건 도저히 내가 짓는 미소가 아닌데….' 하고 생각했다.

그 길로 절에 가니 스님은 "그게 바로 보살님 속에 있는 부처님의 미소이고 힘입니다. 이제 마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일은 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파도 한 조각으로 살지 마시고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항상 끄달리는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세요."

L씨의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제 마음속에 든든한 자성(自性)부처님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 마음이 힘이 무엇인지 느끼며 부지런히 키워가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행게시판

● **월봉사 여름불교학교 영어교실**=울산 월봉사가 8월 6~10일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강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월봉사 여름불교학교 영어교실은 어린이 영어전문 강사를 초빙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레크리에이션, 명상, 다채로운 불교문화 체험 활동도 마련되어 있다. (052)251-4602

● **미황사 여름한문학당 2차**=해남 미황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2차 '2007 여름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8월 8~15일 7박8일 동안 미황사에서 머물며 한문도 배우고 불교문화 · 산사생활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원은 35명. (061)533-3521

● **조계사 '입시100!' 학업성취 특강**=서울 조계사가 8월 7일 김수현 식생활상담소장을 초청해 '수험생 여름철 건강관리' 특강을 개최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부법과 자녀 건강, 지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입시 100!' 학업성취 특강은 7월 31일 이석록 메가스터디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첫 강연을 했다. 10월 17일에는 이만기 UA중앙교육평가이사가 '수능 직전, 당일, 직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32-2183

● **제35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사)한국불교연구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자들을 대상으로 8월 3~5일 불교연수회를 실시한다.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35회 전국 초중고교 교사불교연수회는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다. (02)762-5624

● **교사불자연합회 수련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8월 4~6일 해남 대흥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불자 교사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각 지부 및 지회나 홈페이지(cafe.daum.net/tbuddha)에서 신청하면 된다. (011)740-9494

● **은적사 어린이 숲속학교**=대구 은적사는 8월 2~4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숲속 여름학교를 개최한다. 숲속 여름학교에서는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053)653-1572

● **불교환경장학생 선발**=불교환경연대가 8월 15일까지 2007 불교환경장학생 선발작업에 나선다. 불교계 환경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불교환경장학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대학원생과 연구원 2명(각 500만원), 학부생 5명(각 100만원), 환경활동가 5명(각 100만원) 등 총 12명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02)720-1654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⑥

'일일부작 일일불식' 선종의 핵심정신

(一日不作) (一日不食)

또한 자각종색의 <선원청규(禪苑淸規)>에도 "보청에는 요주(寮主), 직당(直堂)을 제외하고 모두 모름지기 가지런히(다함께) 부(赴: 나아가다)하라. 주지(住持)인이라 할지라도 질병, 관객(官客)을 제외하고 곧 부(赴)하지 아니하면 그 시자를 중(衆)에서 나가게 하라"(上同, p163.)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의 '보청' 조에도 역시 <선문규식>과 마찬가지로 "보청을 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마땅히 고인의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계(誡)를 생각하라."(<大正藏>제48권, p 1144上)고 기술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보청이란 백장이 설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정신 아래 전체 대중이 균등히 생산노동에 힘쓰는 것이다. 이것은 선종의 노동에 대한 정의이자 수행에 대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선종의 모든 노동과 수행의 근본정신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다.

백장청규의 핵심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백장 사의 평생의 고절(苦節)과 힘든 수행은 비유로 다 말할 수 없다. 대개 매일 실행하는 노동에는 반드시 대중들보다도 먼저 앞장서 나아갔다. 이러한 모습의 선사를 주사(主事)가 차마 보고 견딜 수가 없어 하루는 가만히 선사의 도구를 감추고 쉬기를 간청하였다. 선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무런 덕이 없는데 어찌 남들만 수고스럽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선사는 두루 도구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자 그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食)'라는 말이 천하에 유행하게 되었다.(<祖堂集>제14권,<佛光大藏經>「禪藏, p724)

결국 백장의 보청정신에 의해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食)"라는 격언이 생겨났고, 이러한 정신은 청규정신으로 면면히 전승되어졌던 것이다. 여기서 백장은 노동을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신성한 의무이자 수행의 핵심 요소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런 정신과 사상은 결국 노동과 좌선을 일치시키는 '선농겸수(禪農兼修)'의 수행 가풍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위에서 우리는 선종의 노동관에 대해 알 수 있다. 즉 노동과 좌선수행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농겸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이 단순히 생산을 위한 작무가 아니라, 수행으로 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작무가 개인의 노동에 국한된다면, 보청은 항상 위로는 주지(방장)로부터 아래로는 행자에 이르기까지 전대중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대중운력(大衆運力)으로 노동을 하되 노동상(相)에 집착하지 않고 철저히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선농겸수의 정신과 그 전승

사실 혜능으로부터 태동하여 마조의 홍주선에 이르러 만개한 조사선(祖師禪)사상이 생활불교로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좌선과 노동을 함께 수행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혜능은 일찍이 좌선을 정의하여 "일체 경계에 걸림이 없어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坐)요, 자성을 보아 본성이 어지럽지 않음이 선(禪)"이라고 하였으며, "일체 시간 가운데 행주좌와에 항상 직심(直心)을 행하는 것이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주장하여 생활상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마조 역시 이른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생활선의 정신으로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조사선사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좌선-노동의 일치' 가풍 후대에 전승

"마음은 道念·몸은 노동에 전념할 것"

조사선의 일상생활의 수행전개가 토대가 되어 백장이 선원청규를 제정하고 보청법을 시행하여 선종의 자주적 수행가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선종에서 좌선수행과 노동생산을 일치시키는 것을 '농선(農禪)', 혹은 '선농겸수(禪農兼修)'라고 칭한다. 좌선수행과 노동생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활일과로서 선종의 가장 선종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농겸수'의 선종 가풍은 이후 선종의 가장 중요한 실천덕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면면부절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위에서도 대강 언급한 바 있지만 선농겸수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은 선원청규에 의한 보청법의 실천에서 그 의미와 정신을 엿볼 수 있겠다. 백장의 '고청규(古淸規)'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환주청규(幻住淸規)'의 보청에 대한 설명에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다.

혹시 보청에 있어 노동에 임할 때는 일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힘을 다해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좌선수행에 집착하여 적정함을 간직하기 위해 대중의 뜻을 따르지 않고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에 임할 때는 소리내어 농담을 하거나 큰소리로 웃어도 안 되며, 남보다 뛰어남을 자랑하거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단지 마음으로 도념(道念)을 보존하고 몸으로는 대중과 함께 노동에 전념해야 한다. (계속)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반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 대구점 (053) 586-0202 | 제주점 (064) 743-2366 |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